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민석 연구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4주간 총 3,063명이 응답하였다.

둘째,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4년과 2019년의 농어촌 지역 주민 정주 만족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지역 구분에 따른 여건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에서 도시 지역 주민보다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나 2019년에는 도시 주민의 점수를 넘어서고 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 지수 역시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동시에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한 결과다.

하지만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농어촌 주민의 평가는 도시 지역보다 여전히 떨어진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문별 만족도 점수는 2014년도에 비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도시 지역 주민 만족도 점수와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다섯 개 부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은 7개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 지역과의 격차는 가장 클 뿐더러 5년 전에 비해 만족도 상승 폭도 가장 작아, 향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전체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의 만족도 점수에 못 미치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항목이 그 뒤를 이어, 향후 농어촌 주민이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 중 46.7%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데, 그 중 66.0%가 도시로 떠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불편한 교통과 충분한 소득 기회 등이 꼽힌다.

지난 2014년의 조사와 비교가 가능한 세부 문항별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이 체감하는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난 5년 사이 연령대에 무관하게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부문에 대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으며,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개선 폭은 가장 낮다.

2019년도에 조사된 항목 중에서는 경제활동·일자리와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주민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농·귀촌인은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 원주민에 비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계없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각 집단별로 충족되지 못하는 수요가 상이하다.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읍·면 구분에 따라, 접근성에 따라 여건별 만족도 차이가 드러난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부문에서 여건이 취약한 면 지역의 만족도가 읍 지역보다 낮으며, 특히 의료 서비스와 대중교통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다. 면 지역, 원격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복지 부문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부 항목을 고려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반면 환경·경관 및 안전 부문은 면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 지역만의 강점으로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 복지, 경제, 대중교통 여건 등 농어촌 지역에서 취약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고 도시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모델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플랜 및 농어촌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분야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 등 농어촌 신산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과 만족도 격차가 큰 대중교통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형 스마트 교통모델 개발 및 배후지와 중심지 연계사업 발굴 등 접근성 및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경관 자원 등 농어촌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별·계층별로 상이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인구를 벗어나 다변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이 요구된다. 공통적으로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각 계층별 수요를 파악하고 알맞은 정책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등 젊은 귀농·귀촌 주민을 위한 시설 및 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 3.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4

제2장 조사 개요

- 1. 조사 방법 8
- 2.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출 및 부여 11
- 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14

제3장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6
- 2. 부문별 여건 만족도 및 정주 의향 20
- 3. 소결 37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 1. 분석 개요 38
- 2. 부문별 여건 만족도 변화 및 특성 40
- 3. 소결 5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 조사 결과 요약 51
- 2. 시사점 55

부록

부 록 I.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57

부 록 II. 2014~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64

부 록 III.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70

부 록 IV. 2014, 2019년 세부 문항별 도·농 격차 증감 72

부 록 V. 2014, 2019년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74

부 록 VI. 2019년 농어촌 지역 읍·면 구분에 따른 여건 만족도 76

부 록 VII. 2019년 농어촌 지역 접근성에 따른 여건 만족도 78

참고문헌 81

표 차례

제1장

〈표 1-1〉 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내용	7
--	---

제2장

〈표 2-1〉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10
〈표 2-2〉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수	11
〈표 2-3〉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12
〈표 2-4〉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이상적 표본 수	12
〈표 2-5〉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보정 가중치	13
〈표 2-6〉 가중치 부여 전·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표본 변화	13
〈표 2-7〉 가중치 부여 후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최종 표본 할당	13
〈표 2-8〉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4
〈표 2-9〉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5

제3장

〈표 3-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점수	17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19
〈표 3-3〉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20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22
〈표 3-5〉 2018년, 2019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4
〈표 3-6〉 2018년, 2019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5
〈표 3-7〉 2018년, 2019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6
〈표 3-8〉 2018년, 2019년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8
〈표 3-9〉 2018년, 2019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9
〈표 3-10〉 2018년, 2019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1

〈표 3-11〉 2018년, 2019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2
〈표 3-12〉 농어촌 주민의 세부 항목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34
〈표 3-13〉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	36
〈표 3-14〉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36

제4장

〈표 4-1〉 2014년, 2019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41
〈표 4-2〉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 각 부문 만족도 점수 5년간 증감	43
〈표 4-3〉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 각 부문 2019년 만족도 점수 및 격차 ..	44
〈표 4-4〉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하위 주요 항목	45
〈표 4-5〉 읍·면 지역 부문별 여건 만족도	47
〈표 4-6〉 읍·면 지역 만족도 격차 상위 항목	48
〈표 4-7〉 읍·면 지역의 환경·경관, 안전 부문 만족도	48

제2장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9

제3장

〈그림 3-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변화 17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18

〈그림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21

〈그림 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3

〈그림 3-5〉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4

〈그림 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6

〈그림 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7

〈그림 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9

〈그림 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0

〈그림 3-10〉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1

〈그림 3-11〉 이주 의향 35

제4장

〈그림 4-1〉 5년 간 농어촌 주민 만족도 향상 상위·하위 항목 42

〈그림 4-2〉 접근성에 따른 농어촌 지역 간 만족도 격차 상위 5개 항목 49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15년부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15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2019년까지 5개년의 시행계획에 따른 185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다.
 - 2020년에는 새롭게 수립되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을 점검·분석해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는 정주 만족도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 2019년도 조사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결과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 그밖에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이주 의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와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한편, 인구 통계적 특성, 지역 구분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4년과 2019년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지난 5년 사이 농어촌 지역의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도·농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로 정주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농림어업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주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농어촌 지역을 읍·면 구분 및 접근성에 따라 구분하여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고, 지역에 따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3.1. 조사 항목의 점검 및 개편

- 2019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해 온 이래로 8년차에 해당하면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의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점검하고 구성하였다.
 -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매 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항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왔다.
 - 2018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척도를 세분화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자 기존의 10점 척도(1~10점)에서 11점 척도(0~11점)로 변경하였다.
 - 올해는 전년도의 목표를 따르면서, 제3차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항의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3.2. 조사 항목 개편 내용

- 2019년 조사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기 용이하도록 기존의 11점 척도(0~10점)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항은 추가하지 않았다.
-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2019년 조사에서 개편된 부분은 <표 1-1>과 같다.
 - 2018년 조사 내용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고 기존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하위 항목 중 '마을 발전 정도'는 2018년도에 신규 도입되었으나, 질문이 모호하고 2018년 이전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부분의 세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 2018년도 조사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항 중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은 성격이 비슷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의 연령별 응답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변화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로 수정하였다.
 - 안전 부문의 문항 중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와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 항목이며,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 교육 부문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 세분화되어있던 항목을 각각 1개의 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2018년도 조사에서 교육 부문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학생들의 성취수준', '학교 시설', '통학의 편리성' 등 여러 측면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포함한 타 조사에서 유사한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로 단순화하였다.¹⁾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문항 중 주택 상태를 묻는 '규모가 적당하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 되지 않고 양호하다.',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등 4개의 세분화된 문항 역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포함한 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라는 하나의 문항으로 만족도를 물었다.

○ 응답자의 이주 의향과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묻는 문항은 기존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의 학교 교육 여건 만족도를 묻는 문항 중 '교사', '학교와의 의사소통'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의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문항에 대한 결과가 있다.

표 1-1 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내용

구분	개편 내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기존 문항 삭제: 1문항 -[마을 발전 정도] 우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2018년과 동일)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p>○ 문구 수정: 1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p>○ 문항 삭제: 3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안전/ 대응시설 접근성]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안전/ 안전시설 및 설비]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p>○ 문항 통합: 2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학교 교육 여건] 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해 만족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①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② 학생들의 성취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③ 학교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④ 통학의 편리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able> <p>→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생활기반/ 주택상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① 규모가 적당하다.</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r> <td>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⑩</td> </tr> </table> <p>→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p>	①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①----⑩	② 학생들의 성취수준	①----⑩	③ 학교 시설	①----⑩	④ 통학의 편리성	①----⑩	① 규모가 적당하다.	①----⑩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⑩	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①----⑩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①----⑩
①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①----⑩																
② 학생들의 성취수준	①----⑩																
③ 학교 시설	①----⑩																
④ 통학의 편리성	①----⑩																
① 규모가 적당하다.	①----⑩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⑩																
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①----⑩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①----⑩																
이주 의향	(2018년과 동일)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2018년과 동일)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조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와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함께 진행하였다.²⁾
 -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온라인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실제 조사된 표본 비율과 모집단 비율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읍·면 인구의 연령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²⁾ 온라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 방문 면접 조사는 알앤컨설팅에 각각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은 700명,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총 3,063명이며, 그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719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344명이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77\%p$ 이다.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63명 (동 지역 719명, 읍·면 지역 2,344명)
표본 오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77\%$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31일 ~ 11월 28일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의향 등이다(표 2-1)3).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항목 중 1개 항목을 수정하고 3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세분화했던 8개 문항은 이를 포괄하는 2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3) (부록 1)의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 각 부문에서 묻고자 하는 세부 문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기타 조사에서 파악이 가능한 내용에 대한 중복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진 정주 만족도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더욱 간명해지도록 하였다.
- 뿐만 아니라 각 만족도 항목에 대해 정도에 따라 11점 척도(0~10점)로 답하게 함으로써, 전년도 조사 및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인 201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표 2-1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input type="radio"/>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input type="radio"/>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input type="radio"/>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input type="radio"/> 주관적 웰빙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input type="radio"/>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input type="radio"/> 7대 부문별로 3~6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의향	<input type="radio"/> 이주 의향 <input type="radio"/>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2.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출 및 부여

○ 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의 최종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결과이다.

- 농어촌 면 지역의 농업 인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와 방문면접 조사를 혼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농어촌 주민의 모집단과 실제로 조사된 면 지역과 읍 지역의 주민 표본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집단과 표본 간 차이를 최대한 줄여 농어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읍·면 지역의 모집단 비율을 근거로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보정하였다.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농어촌 지역은 14개 광역시·도(동 지역만 있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외)를 6개 권역별로 재구성한 후, 권역별 조사된 읍·면 인구의 비율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부 인구 통계를 통해 모집단의 읍·면 인구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조사된 결과와 모집단의 읍·면 비율이 상이한 점을 가중치를 통해 보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동 지역)만 있는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6개 권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읍·면별 모집단(<<표 2-2>>)과 조사된 표본 수(<<표 2-3>>)를 정리하였다(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을 도 지역과 함께 권역으로 묶어 산출).

표 2-2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수

권역	권역별 읍·면 인구			읍·면 비율(%)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1,183,820	709,320	1,893,140	62.5	37.5	100.0
충청	726,820	896,615	1,623,435	44.8	55.2	100.0
전라	501,944	902,045	1,403,989	35.8	64.3	100.0
경북	686,382	631,597	1,317,979	52.1	47.9	100.0
경남	665,673	686,887	1,352,560	49.2	50.8	100.0
강원/제주	356,263	348,395	704,658	50.6	49.4	100.0
합계	4,120,902	4,174,859	8,295,761	49.7	50.3	100.0

표 2-3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권역	권역별 읍·면 조사된 표본 수			읍·면 비율(%)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288	161	449	64.1	35.9	100.0
충청	247	226	473	52.2	47.8	100.0
전라	196	250	446	44.0	56.1	100.0
경북	204	115	319	64.0	36.1	100.0
경남	265	137	402	65.9	34.1	100.0
강원/제주	140	115	255	54.9	45.1	100.0
합계	1,340	1,004	2,344	57.2	42.8	100.0

-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실제 조사된 6개 권역의 읍·면별 표본 수 2,344명만큼, 모집단의 6개 권역별 읍·면별 표본 수(<표 2-4>)를 산정하였다(각 권역별 조사된 표본 수는 유지하되, 읍·면 비율만 보정).

표 2-4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이상적 표본 수

권역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280.8	168.2	449
충청	211.8	261.2	473
전라	159.5	286.5	446
경북	166.1	152.9	319
경남	197.8	204.2	402
강원/제주	128.9	126.1	255
합계	1,164.4	1,179.6	2,344

- 세 번째로, 실제 조사된 표본 수가 이상적 표본 수를 따를 수 있도록 보정 가중치를 <표 2-5>와 같이 산출하였다.

* 가중치 산출식: 가중치 = 모집단 인구 비율에 따른 표본 수 / 조사된 표본 수

표 2-5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보정 가중치

광역	읍 지역	면 지역
인천/경기	0.9749	1.0449
충청	0.8573	1.1559
전라	0.8135	1.1462
경북	0.8144	1.3293
경남	0.7466	1.4902
강원/제주	0.9209	1.0963
합계	-	-

- 마지막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응답 값에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에 대한 최종 표본을 도출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표본 변화는 아래 두 표와 같다.

표 2-6 가중치 부여 전·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표본 변화

	사례 수		비율(%)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읍 지역	1,340	1,145	57.2	48.8
면 지역	1,004	1,199	42.8	51.2
전체	2,344	2,344	100.0	100.0

표 2-7 가중치 부여 후 권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최종 표본 할당

광역	가중치 부여 후 권역별 읍·면 표본 수			읍·면 비율(%)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281	168	449	62.6	37.4	100.0
충청	212	261	473	44.8	55.2	100.0
전라	159	287	446	35.7	64.4	100.0
경북	166	153	319	52.0	48.0	100.0
경남	198	204	402	49.3	50.8	100.0
강원/제주	129	126	255	50.6	49.4	100.0
합계	1,145	1,199	2,344	48.85	51.15	100.0

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8>과 같다.

표 2-8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063	100.0	전체		3,063	100.0
거주 지역	서울	170	5.6	교육 수준	무학	64	2.1
	인천·경기	677	22.1		초졸·중졸	365	11.9
	대전·세종·충청	535	17.5		고졸	884	28.9
	광주·전라	509	16.6		대졸	1,571	51.3
	대구·경북	382	12.5		대학원 이상	179	5.8
	부산·울산·경남	511	16.7		건강 상태	좋음	1,340
강원·제주	279	9.1	보통	1,164		38.0	
성별	남성	1,484	48.4	나쁨		559	18.3
	여성	1,579	51.6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607	52.5
연령대	19~29세	447	14.6		보통	1,178	38.4
	30대	435	14.2		불만족	278	9.1
	40대	517	16.9		가족 구성	독신 가구	369
	50대	744	24.3	1세대 가구		827	27.0
	60세 이상	919	30.0	2세대 가구		1,613	52.7
거주 기간	10년 미만	1,185	38.7	3세대 가구		173	5.6
	10~19년	612	20.0	조손 가구/기타		82	2.7
	20~29년	456	14.9	이주의향	있음	1,579	51.5
	30~39년	234	7.6		없음	1,484	48.5
	40년 이상	576	18.8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307	10.0
혼인 상태	기혼	2,263	73.9		아니다	2,756	90.0
	미혼	800	26.1	직업	농업·임업·어업	631	20.6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	320	10.5		자영업	274	8.9
	1,000만 원대	419	13.7		사무·관리직	918	30.0
	2,000만 원대	563	18.4		생산·기능·노무	323	10.6
	3,000만 원대	620	20.2		주부	407	13.3
	4,000만 원 이상	1,141	37.2		학생	100	3.3
					퇴직	89	2.9
					무직/기타	319	10.4

○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9>와 같다.

표 2-9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344	100.0	전체		2,344	100.0
거주 지역	서울	0	0.0	교육 수준	무학	63	2.7
	인천·경기	449	19.2		초졸·중졸	353	15.1
	대전·세종·충청	473	20.2		고졸	759	32.4
	광주·전라	446	19.0		대졸	1,058	45.1
	대구·경북	319	13.6		대학원 이상	111	4.7
	부산·울산·경남	402	17.2		건강 상태	좋음	1,075
강원·제주	255	10.9	보통	851		36.3	
성별	남성	1,085	46.3	나쁨		418	17.8
	여성	1,259	53.7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282	54.7
연령대	19~29세	315	13.5		보통	878	37.4
	30대	315	13.5		불만족	184	7.9
	40대	373	15.9		가족 구성	독신 가구	275
	50대	596	25.4	1세대 가구		726	31.0
	60세 이상	744	31.8	2세대 가구		1,149	49.0
거주 기간	10년 미만	887	37.9	3세대 가구		131	5.6
	10~19년	411	17.5	조손 가구/기타		64	2.7
	20~29년	321	13.7	이주의향	있음	1,095	46.7
	30~39년	185	7.9		없음	1,249	53.3
	40년 이상	540	23.0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290	12.4
혼인 상태	기혼	1,797	76.7		아니다	2,054	87.6
	미혼	547	23.3	직업	농업·임업·어업	628	26.8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	261	11.1		자영업	198	8.4
	1,000만 원대	355	15.1		사무·관리직	572	24.4
	2,000만 원대	457	19.5		생산·기능·노무	263	11.2
	3,000만 원대	498	21.2		주부	306	13.1
	4,000만 원 이상	773	33.0		학생	68	2.9
					퇴직	58	2.5
					무직/기타	249	10.6

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는 5년 전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역전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네 항목에서 모두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 특히 '마을 발전 전망'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큰 폭(1.7점)으로 상승했다.
- 5년 전에 비해 도시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모두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1년 사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점수

(평균 점수/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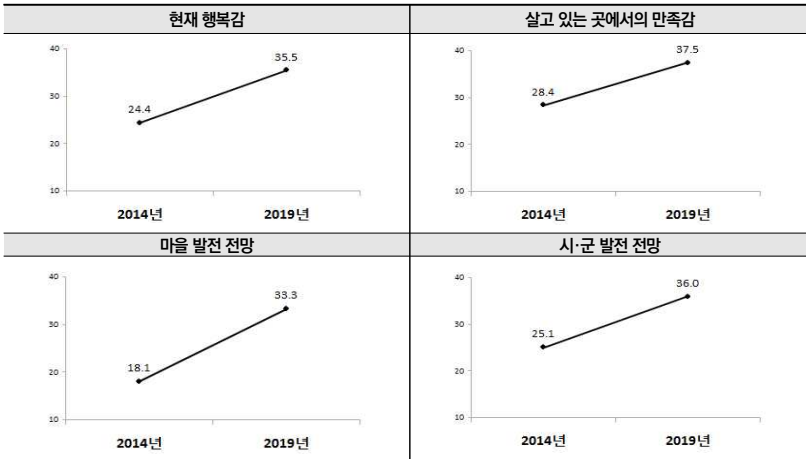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2014년	2019년	2014년	2019년	2014년	2019년	2014년	2019년
도시 지역 (동 지역)	7.1	5.7	7.2	6.0	6.5	6.2	6.8	6.3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5.6	6.4	5.8	6.4	4.7	6.3	5.8	6.4
도·농 차이	-1.5	0.7	-1.4	0.4	-1.8	0.1	-1	0.1

○ 5년 전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농어촌 주민 비율이 증가하였다.

- 11점 척도(0~10점)로 평가한 조사에서 0~3점은 '부정', 4~7점은 '보통', 8~10점은 '긍정'이라고 설정하였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던 5개년 동안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 특히 '마을 발전 전망'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큰 폭(15.2%p)으로 상승했다.

그림 3-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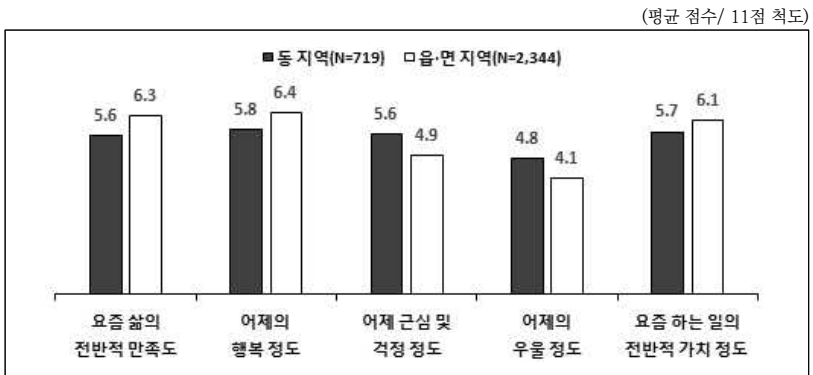
주 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2) 11점 척도(0~10점)에서 8점~10점을 '긍정'으로 구분함.

1.2. 주관적 웰빙 지수

- 2017년도부터 도입된 주관적 웰빙 지수 조사는, 물리적인 지표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다.
 -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OECD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발표하는 BLI(Better Life Index)의 '주관적 웰빙'과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
 -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주민의 점수보다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묻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의 평균 점수는 도시 주민에 비해 낮다.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 농어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는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적 정서를 측정한 세 개 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상승하고, 부정적 정서를 측정한 두 개 문항의 점수는 하락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했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2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재산출한 후,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도시 주민은 5.3점, 농어촌 주민은 6.0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0.7점 가량 더 높았다.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평균 점수/ 11점 척도)

구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도시 지역 (동 지역)	5.9	5.6	6.1	5.8	5.5	5.6	4.7	4.8	6.1	5.7	5.6	5.3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6.1	6.3	6.2	6.4	5.0	4.9	4.1	4.1	6.0	6.1	5.8	6.0
도·농 차이	0.2	0.7	0.1	0.6	-0.5	-0.7	-0.6	-0.7	-0.1	0.4	0.2	0.7

주: 3번, 4번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2. 부문별 여건 만족도 및 정주 의향

2.1.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7대 부문별 중요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개 정책 부문 중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부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3-3>과 같다.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 세 부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도시 주민의 경우 정주생활기반,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순으로 전년도 결과와 동일하다.
 -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순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표 3-3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계	
도시 지역	1순위 비율	(719)	21.7	7.6	27.3	18.4	5.0	5.7	14.3	100.0
		순위	2	5	1	3	7	6	4	-
	1~3순위 비율	(719)	17.0	7.8	20.2	14.2	12.5	10.8	17.5	100.0
		순위	2	7	1	4	5	6	3	-
농촌 지역	1순위 비율	(2,344)	29.0	10.8	19.8	18.0	7.9	4.2	10.4	100.0
		순위	1	4	2	3	6	7	5	-
	1~3순위 비율	(2,344)	20.7	10.7	17.1	15.8	13.5	9.1	13.2	100.0
		순위	1	6	2	3	4	7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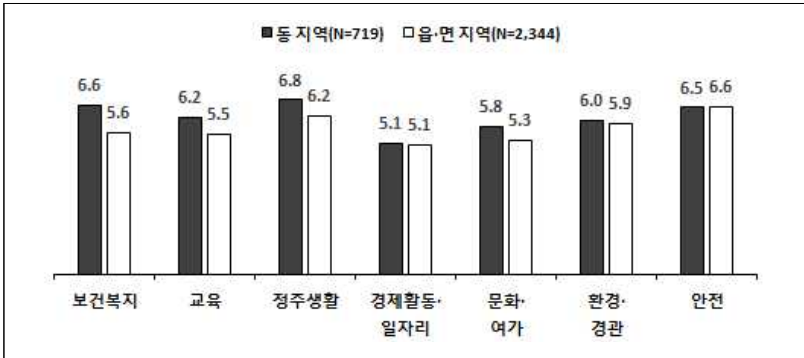
2.2. 부문별 만족도 비교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다섯 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다.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평균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상위 세 부문은 보건·복지(1.0점), 교육(0.7점), 정주생활기반(0.6점) 순이다.
- 안전 부문의 만족도는 전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낮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0.1점 차이로 근소하게 넘어섰다.

그림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6.6점) 부문이었으며, 이어서 정주생활기반(6.2점), 환경·경관(5.9점), 보건·복지(5.6점), 교육(5.5점), 문화·여가(5.3점), 경제활동·일자리(5.1점) 순이다.
- 7개 부문 만족도 점수의 평균이 전체 평균(5.7점)보다 낮은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경제·일자리 부문이다.
- 안전 부문의 만족도는 2018년에 비해 0.3점 상승하였으나,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오히려 0.1점 낮아졌다.
-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 변화가 없었다.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평균 점수/ 11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증감 ('19년 - '18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보건·복지	6.8	6.6	5.6	5.6	-1.2	-1.0	0.0
교육	6.3	6.2	5.5	5.5	-0.8	-0.7	0.0
정주생활기반	6.9	6.8	6.2	6.2	-0.7	-0.6	0.0
경제활동·일자리	5.6	5.1	5.1	5.1	-0.5	0.0	0.0
문화·여가	6.0	5.8	5.4	5.3	-0.6	-0.5	-0.1
환경·경관	6.2	6.0	5.9	5.9	-0.3	-0.1	0.0
안전	6.8	6.5	6.3	6.6	-0.5	0.1	0.3
전체 평균	6.4	6.1	5.7	5.7	-0.7	-0.4	0.0

○ 7대 부문별 도·농 만족도 점수 격차는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과 문화·여가 부문의 도·농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도·농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도시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 세부 항목별 만족도 비교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 만족도 결과에서 나아가, 각 부문의 세부 항목별 여건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결과만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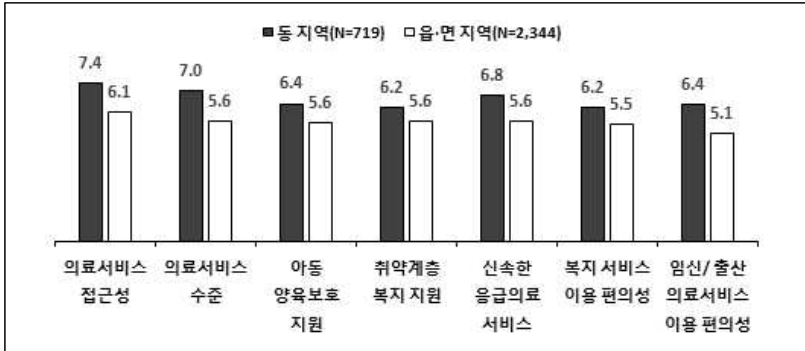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은 모든 세부 항목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낮다.

- 도시 지역과 가장 격차가 큰 항목은 ‘의료 서비스 수준(1.4점)’이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 역시 도시 지역과 1.3점 차이를 보인다.
- 이러한 격차와는 별개로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산부인과 관련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그림 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세부 항목의 만족도 점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 수치는 하락하고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항목 수치는 상승하였으나, 그 폭은 0.1점에 그친다.
- 세부 문항 만족도의 평균 수치도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1년 사이 보건·복지 부문의 개선 여부는 거의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5 2018년, 2019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3	7.4	6.1	6.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7.1	7.0	5.6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6	6.4	5.6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4	6.2	5.7	5.6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0	6.8	5.5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4	6.2	5.6	5.5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6.5	6.4	5.1	5.1
전체	6.8	6.6	5.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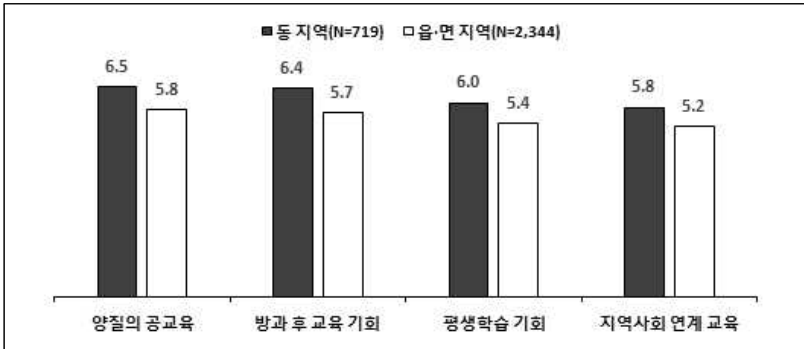
□ 교육 부문

○ 교육 부문 세부 항목 만족도는 모두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 '양질의 공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0.7점 낮으며, '평생학습 기회'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항목의 평균 점수도 0.6점 차이가 난다.

그림 3-5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전년도에 비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 '양질의 공교육' 과 '평생학습 기회' 항목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였다.
 - '양질의 공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0.1점씩 상승하였고, '지역 사회 연계 교육' 항목의 만족도는 0.2점 하락하였다.
 - 각 항목의 만족도 점수 평균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 정도는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18년에 새로이 추가된 항목인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은 5.2점에 머물러 있어,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표 3-6 2018년, 2019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아이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5	6.5	5.7	5.8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과 후 교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6.5	6.4	5.7	5.7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6.0	6.0	5.3	5.4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6.0	5.8	5.4	5.2
전체	6.3	6.2	5.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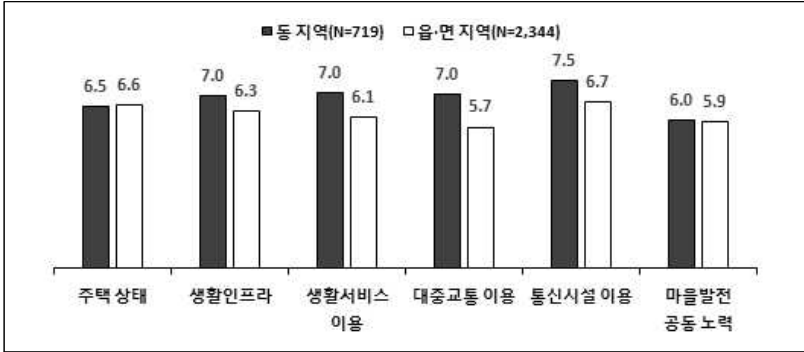
주: '아이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항목의 경우, 2018년도에는 '교사 전문성', '학생들의 성취수준', '학교 시설', '통학의 편리성'으로 세분화하여 응답을 받음.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2018년과 동일하게 '주택 상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중교통 이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1.3점으로 가장 크다. 그 뒤로는 '생활서비스 이용(0.9점)', '통신시설 이용(0.8점)'이 뒤따르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주생활기반 부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을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증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0.1점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점수 변동은 없었다.
- '주택 상태'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6.6점으로 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은 농어촌 지역의 해당 항목 만족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전년도의 6.6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표 3-7 2018년, 2019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6.6	6.5	6.6	6.6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7.0	7.0	6.3	6.3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1	7.0	6.2	6.1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1	7.0	5.7	5.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7.5	7.5	6.7	6.7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6.2	6.0	5.9	5.9
전체	6.9	6.8	6.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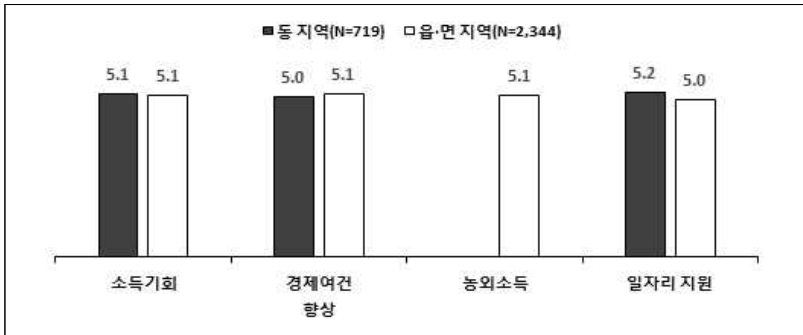
주: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항목의 경우, 2018년도에는 '규모', '설비', '상태', '화재 안전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응답을 받음.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소득기회’ 항목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여건 향상’ 체감 정도는 농어촌 주민이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 ‘일자리 지원’ 만족도는 도시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네 가지 세부 항목 중 농업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 여부를 묻는 ‘농외소득’ 항목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측정하였다.
- ‘소득기회’ 항목 만족도 점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5.1점으로 동일하다.
- ‘경제여건 향상’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이 5.0점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5.1점으로 0.1점 앞선다. 반면 ‘일자리 지원’ 항목은 도시 지역이 5.2점, 농어촌 지역이 5.0점으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더 낮다.

그림 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주: ‘농외소득’ 항목은 농어촌 지역 주민만 답하게 함.

- 농어촌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여건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8년에 비해 근소하게 하락하였다.
- ‘소득기회’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2018년에 이어 5.1점으로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나,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일자리 지원’ 등 나머지 세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0.1점씩 하락하였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2019년도 세부 항목 평균 점수는 동일하게 5.1점이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도시 주민의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영향이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표 3-8 2018년, 2019년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6	5.1	5.1	5.1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6	5.0	5.2	5.1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농촌지역만 조사).	-	-	5.2	5.1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6	5.2	5.1	5.0
전체	5.6	5.1	5.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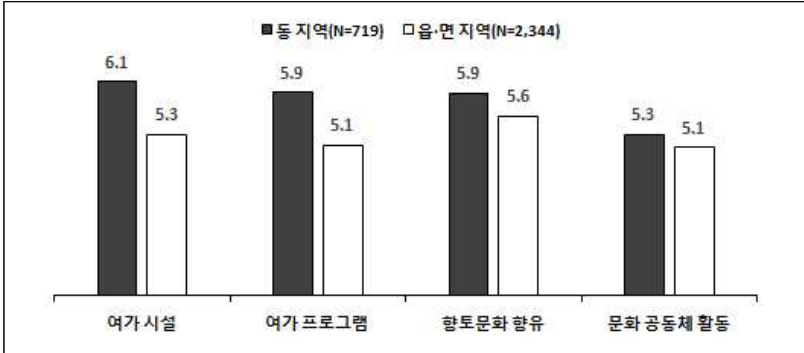
□ 문화·여가 부문

○ 문화·여가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

- ‘여가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각각 0.8점씩 도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인다.
- ‘향토문화 향유’와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에서의 만족도 점수 격차도 각각 0.3점, 0.2점에 이른다.

그림 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평균적인 만족도 점수 차이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0.6점에서 0.5점으로 줄어들었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균 점수만 보았을 때는 5.4점에서 5.3점으로 0.1점 감소하였다.

- ‘여가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0.1점, 0.2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주민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3-9 2018년, 2019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2	6.1	5.4	5.3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1	5.9	5.3	5.1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6.2	5.9	5.6	5.6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5.6	5.3	5.1	5.1
전체	6.0	5.8	5.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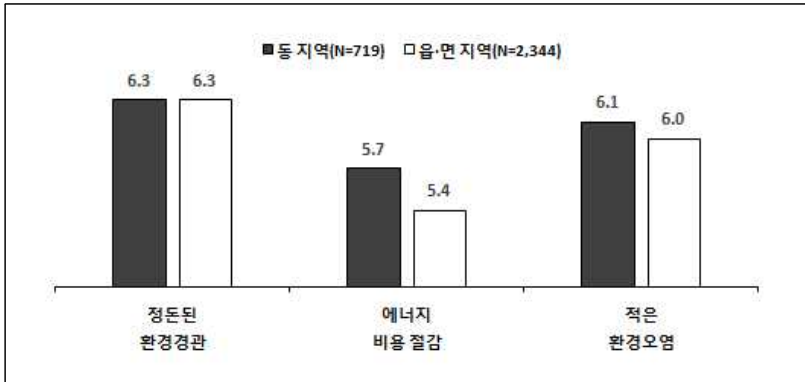
□ 환경·경관 부문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 항목 만족도 중 '정돈된 환경경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이 동일하게 6.3점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적은 환경오염' 두 항목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떨어진다.

-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가 0.3점으로 두드러지며,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차이는 0.1점이다.

그림 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전년도와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돈된 환경경관'과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올랐으나,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에서는 줄어들었다.

- '정돈된 환경경관'과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각각 0.2점, 0.1점 상승하였으나,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0.2점 하락하였다.
- 또한, 앞선 두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의 도시 지역과의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에너지 비용 절감' 만족도 점수의 격차는 0.3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3-10 2018년, 2019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4	6.3	6.1	6.3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9	5.7	5.6	5.4
쓰레기 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3	6.1	5.9	6.0
전체	6.2	6.0	5.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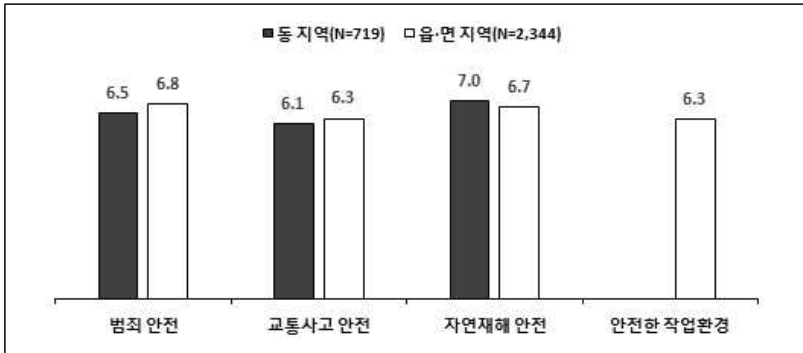
□ 안전 부문

○ 안전 부문에서는 '자연재해 안전' 항목을 제외한 '범죄 안전', '교통사고 안전'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더 양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업 환경의 안전 체감도를 묻는 '안전한 작업환경'은 농어촌 주민에게만 질문하였다. 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6.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2점 상승하였다.
- '범죄 안전'과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각각 0.3점, 0.2점씩 높았다.
- 반면 '자연재해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0.3점 높았다.

그림 3-10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주: '안전한 작업환경' 항목은 농어촌 지역 주민만 답하게 함.

○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 ‘교통사고 안전’ 항목의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6.3점으로 동일하며, ‘범죄 안전’, ‘자연재해 안전’, ‘안전한 작업환경’ 항목에서는 각각 0.2점, 0.1점, 0.2점 상승하였다.
- 특히 ‘범죄 안전’과 ‘교통사고 안전’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8년에 도시 주민보다 0.1점씩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두 항목 모두 역전 현상을 보이며 도시 주민보다 각각 0.3점, 0.2점 높게 나타난다.

표 3-11 2018년, 2019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8년	'19년	'18년	'19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7	6.5	6.6	6.8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4	6.1	6.3	6.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1	7.0	6.6	6.7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장애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만 조사).	-	-	6.1	6.3
전체	6.8	6.5	6.3	6.6

□ 7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 조사 결과

○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도·농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1.0점 낮다.

- 교육 부문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대한 도·농 격차가 각각 0.7점, 0.6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와 같은 격차 순위는 향후 농어촌 삶의 질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문을 보여준다.
- 반면 안전 부문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0.1점 높다.

○ 7대 정책 부문의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1.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다.

- 동일한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스', 그리고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항목의 도·농 격차가 각각 1.3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향후 농어촌 주민이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부문은 안전 부문이 유일하며, 세부 항목으로는 '범죄 안전'과 '교통안전' 항목만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양호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전년도와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에서의 만족도 증감은 큰 변화가 없다. 세부 항목에서 0.2점 이하의 증감폭을 보였다.

- 전체 32개 세부 항목 중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학교 교육 여건', '평생학습 기회', '정돈된 환경경관', '범죄 안전', '자연재해 안전', '안전한 작업환경' 등 7개 항목만 전년도보다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생활 서비스', '여가 시설', '여가 프로그램' 항목은 전년도보다 만족도 점수가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도시 지역보다 0.6점 이상 만족도 점수가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12 농어촌 주민의 세부 항목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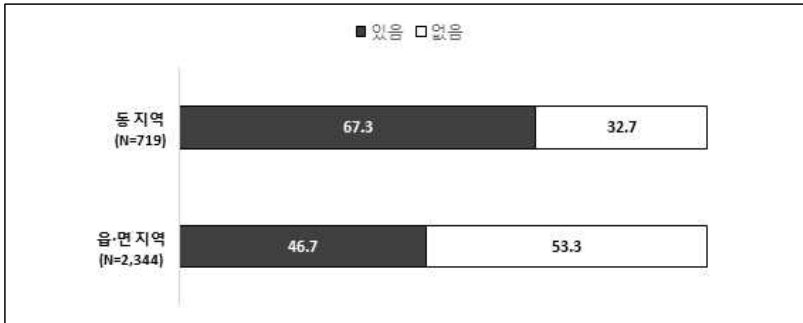
부문	세부 항목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증감 ('19년-'18년)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1.3	0.0
	의료 서비스 수준	5.6	-1.4	0.0
	아동 양육·보호 지원	5.6	-0.8	0.0
	취약계층 복지 지원	5.6	-0.6	-0.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6	-1.2	0.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5	-0.7	-0.1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5.1	-1.3	0.0
	(평균)	5.6	-1.0	0.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5.8	-0.7	0.1
	방과 후 교육 기회	5.7	-0.7	0.0
	평생학습 기회	5.4	-0.6	0.1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2	-0.6	-0.2
	(평균)	5.5	-0.7	0.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6	0.1	0.0
	생활 인프라	6.3	-0.7	0.0
	생활 서비스	6.1	-0.9	-0.1
	대중교통	5.7	-1.3	0.0
	통신 시설	6.7	-0.8	0.0
	공동체 활동	5.9	-0.1	0.0
	(평균)	6.2	-0.6	0.0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1	0.0	0.0
	경제여건 향상	5.1	0.1	-0.1
	농외소득(농촌만)	5.1	-	-0.1
	일자리 지원	5.0	-0.2	-0.1
	(평균)	5.1	0.0	0.0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5.3	-0.8	-0.1
	여가 프로그램	5.1	-0.8	-0.2
	향토문화 향유	5.6	-0.3	0.0
	문화 공동체 활동	5.1	-0.2	0.0
	(평균)	5.3	-0.5	-0.1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0.0	0.2
	에너지 비용 절감	5.4	-0.3	-0.2
	적은 환경오염	6.0	-0.1	0.1
	(평균)	5.9	-0.1	0.0
안전	범죄 안전	6.8	0.3	0.2
	교통안전	6.3	0.2	0.0
	자연재해 안전	6.7	-0.3	0.1
	안전한 작업환경(농촌만)	6.3	-	0.2
	(평균)	6.6	0.1	0.1

2.4. 이주 의향

- 지역 주민의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은 정주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때문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각각 묻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주민보다 도시 주민의 이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어촌 주민 중에서는 46.7%가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데 비해 도시 주민 중에서는 67.3%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3-11 이주 의향

(단위: %)



- 도시와 농어촌 주민 모두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66.0%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도시 주민의 60.3%가 다른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한다.
 - 농어촌 주민의 19.3%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에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표 3-13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

(단위: %)

구분	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도시로	60.3	66.0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19.2	19.3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18.4	10.8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2.1	3.9
합계	100.0	100.0

○ 불편한 교통, 충분치 않은 소득 기회 등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주요 사유로 꼽힌다.

- 농어촌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다'로, 전체 응답 비율의 15.3%를 차지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가 교통 여건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가 각각 10.2%로 동률을 이루며 교통 문제와 소득 문제 사유를 뒤따른다.

표 3-14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비율(%)	
	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17.1	5.8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5.9	10.2
생계를 위한 소득기회를 얻기 위해서	11.8	14.1
교통이 불편하다.	10.5	15.3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7.4	10.2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3.9	8.6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3.9	3.4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2.7	2.3
난방비가 많이 든다.	2.5	1.8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2.3	2.2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2.1	10.2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2.1	3.7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9	2.3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2	1.5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1.0	0.6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0.8	2.6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6	0.3
기타	12.2	4.9
합계	100.0	100.0

3. 소결

- 2019년도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도시 지역 주민을 능가한다.
 - 5년 전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는 점수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낮았던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9년에는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다.
 -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농어촌 주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가는 도시 지역보다 낮게 측정 되어, 만족도 격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7대 정책 부문별 여건 중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다섯 개 부문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낮다.
 -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다고 꼽는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특히 도시 지역과 만족도 점수 격차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주민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의료 서비스 수준과 접근성, 선부인과 관련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그밖에 경제활동 및 문화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낮다.

- 농어촌 지역 주민 중 일부는 불편한 교통, 충분치 않은 소득 등을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길 희망한다.
 - 도시 지역과 만족도 격차가 크거나 절대적인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실제로 이주 희망 사유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1. 분석 개요

- 2014년과 2019년의 정주 만족도 결과를 비교하여 5년 사이의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4년과 2019년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5년 사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추이를 점검하였다.
 - 7대 부문과 각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변화 및 농어촌 주민 만족도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의 체감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농어촌 지역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5년 사이의 만족도 점수 변화와 2019년 조사 결과의 특성 간 격차를 살펴보았다.
 - 농어촌 지역 응답자의 연령, 직업,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7대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변화를 살펴보고 2019년 현재 그러한 인구 통계적 특성별 만족도 격차를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유형에 따른 여건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였다.

- 또한 2019년 조사 결과에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민 유형별로 충족되고 있지 못한 수요를 검토하였다.
- 농어촌 지역 읍·면 구분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른 7대 부문과 세부 항목별 여건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 읍·면 지역 구분 조사는 2019년 조사에서 처음 실시되어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나,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또한 접근성에 따라 근교, 일반, 원격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농어촌 지역 간 여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 부문별 여건 만족도 변화 및 특성

2.1. 7대 부문별 여건 만족도 변화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 점수는 2014년도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여가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2점 이상 상승하였다. ‘생활 인프라(1.8점)’, ‘생활 서비스(1.6점)’, ‘소득 기회(1.4점)’의 상승이 뒤를 잇고 있다.
 - 가장 상승 폭이 더딘 항목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0.3점)’이다. 해당 항목 외에도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들의 만족도 점수 상승 폭은 모두 1점 미만에 불과하다.
- 도시 지역과 비교한 만족도 격차가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
 - 도시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인 격차 완화 정도는 2019년도 도·농 점수 차이에서 2014년도 도·농 점수 차이를 빼는 것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그 결과값은 해당 기간 동안 도·농 격차가 완화된 정도를 나타낸다. 음(-)의 값은 그만큼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5년 사이 도·농 격차 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여가 시설’, ‘소득 기회’ 항목이다.
 - 부문별로는 정주생활기반과 문화·여가 부문에서 격차를 극복한 정도가 가장 크다.
 - 반면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격차는 가장 적게 줄어들었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 항목에서는 작은 점수이지만 오히려 도·농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보건·복지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필요하다.

표 4-1 2014년, 2019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농어촌	2019년 농어촌	농어촌 지역 증감 (*19년-'14년)	도·농 격차* (농어촌-도시)증감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2	6.1	0.9	1.2
	의료 서비스 수준	-	5.6	-	-
	아동 양육·보호 지원	4.8	5.6	0.8	0.3
	취약계층 복지 지원	5.2	5.6	0.4	-0.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3	5.6	0.3	0.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	5.5	-	-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	5.1	-	-
(평균)	5.1	5.6	0.5	0.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4.8	5.8	1.0	1.0
	방과 후 교육 기회	-	5.7	-	-
	평생학습 기회	4.2	5.4	1.2	1.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	5.2	-	-
	(평균)	4.5	5.5	1.0	1.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5.3	6.6	1.3	1.4
	생활 인프라	4.5	6.3	1.8	2.2
	생활 서비스	4.5	6.1	1.6	2.0
	대중교통	4.9	5.7	0.8	1.4
	통신 시설	-	6.7	-	-
	공동체 활동	-	5.9	-	-
(평균)	4.8	6.2	1.4	1.8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기회	3.7	5.1	1.4	1.7
	경제여건 향상	4.0	5.1	1.1	1.2
	농외소득	3.9	5.1	1.2	-
	일자리 지원	-	5.0	-	-
	(평균)	3.9	5.1	1.2	1.5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3.3	5.3	2.0	1.9
	여가 프로그램	2.5	5.1	2.6	1.6
	향토문화 향유	-	5.6	-	-
	문화 공동체 활동	-	5.1	-	-
	(평균)	2.9	5.3	2.4	1.8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5.2	6.3	1.1	1.1
	에너지 비용 절감	-	5.4	-	-
	적은 환경오염	5.4	6.0	0.6	0.9
	(평균)	5.3	5.9	0.6	1.0
안전	범죄 안전	6.1	6.8	0.7	0.6
	교통안전	5.7	6.3	0.6	0.8
	자연재해 안전	5.8	6.7	0.9	1.0
	농작업 안전	-	6.3	-	-
	(평균)	5.9	6.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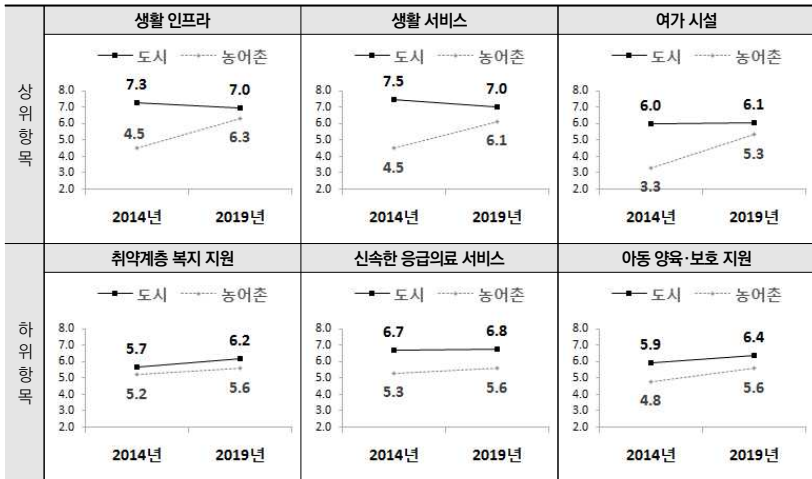
(*19년·도·농 차이 - '14년·도·농 차이)

○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해 5년 사이 농어촌 주민 만족도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상위, 하위 각각 세 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하단의 <그림 4-1>과 같다.⁴⁾ 앞서 기술한 도·농 격차의 완화 정도는 각각의 그래프에서 해당 기간 사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내는 두 그래프가 좁혀진 정도로 나타난다.

- 상위 항목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한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크게 상승한 결과 격차가 1.0점 이내로 줄어들었다.
- 하위 항목들에서 역시 5년 사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지만,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평행에 가까운 그래프를 그린다든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특히 모두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들로, 보건·복지 여건의 도·농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림 4-1 5년 간 농어촌 주민 만족도 향상 상위·하위 항목

(11점 척도)



4) 전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록 IV>의 '2014, 2019년 세부 문항별 도·농 격차 증감' 참조

2.2.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 만족도 변화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표 4-2>와 같이 정리된다. 이는 2014년과 2019년 각 부문에서 비교가 가능한 세부 항목만을 골라내 점수를 측정하고, 부문별 평균을 내어 도출한 값이다.⁵⁾

-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중 연령, 성별, 농림어업 종사 여부, 가족 구성, 연간 소득, 귀농·귀촌 여부 등에 따른 비교 결과,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로 만족도 점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4-2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 각 부문 만족도 점수 5년간 증감

(11점 척도)

부문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인	아님
보건·복지	0.2	0.5	1.0	1.2	0.4	0.2	0.6
교육	0.8	1.0	1.6	1.9	0.7	1.0	1.1
정주생활기반	0.6	1.4	1.7	2.2	0.9	1.3	1.4
경제활동·일자리	0.6	1.0	1.7	2.1	0.7	1.0	1.3
문화·여가	1.3	1.8	2.9	3.2	1.7	2.1	2.3
환경·경관	-0.3	0.6	1.8	2.0	0.4	1.1	0.9
안전	0.4	0.7	1.5	1.8	0.4	1.0	0.8
(전체)	0.5	1.0	1.7	2.1	0.7	1.1	1.2

○ 7대 부문 중 지난 5년 사이 여건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가장 높은 것은 문화·여가, 가장 저조한 것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체 농어촌 지역 주민 응답자의 7대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균을 비교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

- 인구 특성별 구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동안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정책적인 성과에 대해 다른 부문에 비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체감 정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⁵⁾ 각 연도 부문별 세부 항목에 따른 점수는 <부록 V>의 '2014, 2019년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참조

○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만족도 점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귀농·귀촌인 집단은 환경·경관과 안전 부문을 제외한 다섯 부문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만족도 개선 정도가 저조하다.

- 부문에 따라 상이하지만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 주민에게는 여건 개선 체감 정도가 덜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 인구 통계적 특성별로 가장 증감 수치가 낮은 부문은 젊은 연령층은 환경·경관, 농림어업 비종사자는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귀농·귀촌인은 보건·복지로 나타난다.
- 연령별, 직업별 만족도 점수 증가폭은 부문에 따라 대체적으로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 귀농·귀촌인의 여건 만족도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에 비해 여전히 낮다.
- 환경·경관 부문에서는 20~30대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오히려 5년 전보다 0.3점만큼 감소하였다.

표 4-3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 각 부문 2019년 만족도 점수 및 격차

(11점 척도)

부문	인구 통계적 특성별 만족도 점수							인구 통계적 특성별 격차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인	아님	60대 이상 - 20~30대	농림어업 종사 - 그 외 직업	귀농·귀촌 아님 - 귀농·귀촌인
보건·복지	5.0	5.6	6.1	6.2	5.4	4.8	5.7	1.1	0.8	0.9
교육	5.1	5.4	5.9	6.1	5.4	5.1	5.6	0.8	0.7	0.5
정주생활 기반	5.8	6.2	6.6	6.7	6.1	5.5	6.3	0.8	0.6	0.8
경제활동·일자리	4.8	5.0	5.4	5.8	4.8	4.7	5.2	0.6	1.0	0.7
문화·여가	4.8	5.2	5.7	6.0	5.1	4.8	5.3	0.9	0.9	0.5
환경·경관	5.3	5.7	6.6	6.9	5.6	5.5	6.0	1.3	1.3	0.5
안전	6.0	6.5	7.3	7.4	6.3	6.3	6.6	1.3	1.1	0.3
(전체)	5.3	5.7	6.2	6.4	5.5	5.2	5.8	1.0	0.9	0.6

○ 2019년 조사에서 연령별, 직업별 만족도 격차는 환경·경관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서는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순으로 격차가 크다.

- 경제활동·일자리와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주민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격차는 각 구분에 따라 해당 수치만큼 60대 연령층에 비해 20~30대 연령층의 만족도가 낮고, 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그 외 직업군 종사자의 만족도가 낮으며,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원주민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환경·경관 부문의 절대적인 만족도 점수는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젊은 연령층과 농림어업 비종사자 주민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문은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부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하위 주요 항목

구분	항목	
연령별	20~30대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문화 공동체 활동(이상 4.4), 일자리 지원(4.7)
	40~50대	일자리 지원(4.8), 문화 공동체 활동(4.9),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여가 프로그램(이상 5.0)
	60대 이상	일자리 지원(5.3),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여가 프로그램, 소득 기회(이상 5.4)
직업별	농림어업	여가 프로그램(5.6), 일자리 지원, 농외소득(이상 5.7), 경제여건 향상, 소득 기회, 여가 시설(이상 5.8)
	그 외 직업	일자리 지원, 문화 공동체 활동(4.7), 농외소득, 경제여건 향상, 소득기회(이상 4.8),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4.9)
귀농·귀촌 여부별	귀농·귀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4.3), 일자리 지원(4.5),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 의료 서비스 수준(이상 4.6)
	아님	일자리 지원, 문화 공동체 활동, 농외소득(이상 5.1),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경제여건 향상, 소득 기회(이상 5.2), 지역사회 연계 교육(5.3)

주: 괄호 안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계없이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각 집단별로 충족되지 못하는 수요가 상이하다.
 - 5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와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한편, 60대 이상 고령 주민은 여가 프로그램 개선 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림어업 비종사자와 귀농·귀촌인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또한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농림어업 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낮게 나타난다.

- 향후 농어촌 지역의 분야별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계층 및 집단에 따라 상이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5년 사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문화·여가 부문의 저조한 만족도가 지난 5년 사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는 낮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만족도 개선 폭은 가장 저조하며, 2019년 현재에도 만족도 점수가 여전히 낮다. 그 중에서도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에서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도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집단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 귀농·귀촌인 집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여건 외에도 정주생활기반 여건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3. 농어촌 지역 유형별 만족도 격차

□ 읍·면 구분에 따른 만족도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등 네 개의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면 지역에 서 더 떨어진다. 이는 부문별 도시·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표 4-5 읍·면 지역 부문별 여건 만족도⁶⁾

부문	읍 지역	면 지역	읍·면 격차(읍-면)
보건·복지	5.7	5.4	0.3
교육	5.6	5.4	0.2
정주생활기반	6.3	6.1	0.2
경제활동·일자리	5.1	5.1	0.0
문화·여가	5.3	5.2	0.1
환경·경관	5.8	6.0	-0.2
안전	6.5	6.6	-0.1
(전체)	5.8	5.7	0.1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생활 서비스’ 및 ‘대중교통’ 등 읍·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세부 항목 역시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여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 의료 서비스 및 대중교통 등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특히 떨어지는 세부 항목 여건 개선에 정책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아동 양육·보호 지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등 만족도 격차 상위 항목 중 절반의 항목이 보건·복지 부문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절실하다.

6) 전체 부문 및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는 <부록 VI>의 ‘2019년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여건 만족도’ 참조

표 4-6 읍·면 지역 만족도 격차 상위 항목

세부 항목	읍 지역	면 지역	읍·면 격차(읍-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	6.4	5.8	0.6
생활 서비스	6.4	5.8	
대중교통	5.9	5.5	0.4
의료 서비스 수준	5.8	5.5	0.3
아동 양육·보호 지원	5.7	5.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8	5.5	
생활 인프라	6.5	6.2	
여가 시설	5.4	5.1	

○ 환경·경관과 안전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면 지역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다.

-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 및 경관, 안전 여건에 대해서는 면 지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다.
-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여건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농어촌 지역의 장점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4-7 읍·면 지역의 환경·경관, 안전 부문 만족도

부문	세부 항목	읍 지역	면 지역	읍·면 격차(읍-면)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2	6.5	-0.3
	에너지 비용 절감	5.3	5.5	-0.2
	적은 환경오염	5.9	6.1	-0.2
	(평균)	5.8	6.0	-0.2
안전	범죄 안전	6.7	7.0	-0.3
	교통안전	6.2	6.4	-0.2
	자연재해 안전	6.8	6.7	0.1
	농작업 안전	6.3	6.3	0.0
	(평균)	6.5	6.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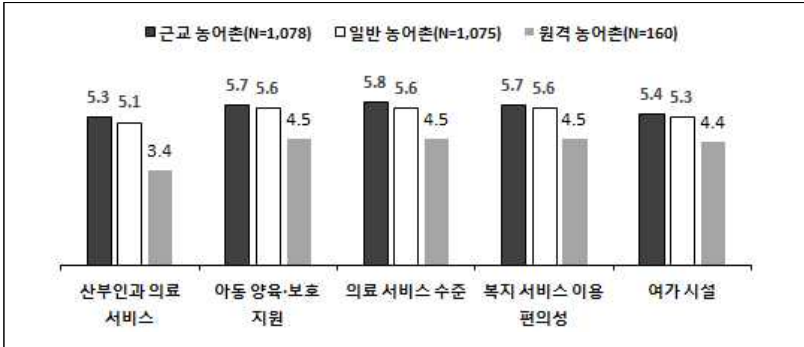
□ 접근성에 따른 만족도

○ 농어촌 지역을 접근성에 따라 근교, 일반, 원격 농어촌으로 구분⁷⁾하여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원격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세부 항목은 <그림 4-2>와 같이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아동 양육·보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여가 시설' 등으로, 원격 지역에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여건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⁸⁾

그림 4-2 접근성에 따른 농어촌 지역 간 만족도 격차 상위 5개 항목

(평균 점수/ 11점 척도)



주: 오차 범위 이내 결측값을 제외한 농어촌 주민 2,313명에 대한 응답

7) 대도시 접근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전국 농어촌 시·군을 분류하는 방법은 성주인 외(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을 참고하였으며, 지역 구분 기준과 상충하는 거주지 응답을 한 오차범위 내 응답자 31명을 제외한 농어촌 주민 2,313명에 대한 응답을 반영하였다.

8) 전체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는 <부록 Ⅵ>의 '2019년 농어촌 지역 접근성에 따른 여건 만족도' 참조

3. 소결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4년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9년의 부문별 여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며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완화되었다.
 - 정주생활기반과 문화·여가 여건에 대해서 도시 지역과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격차는 개선 정도가 가장 적었다.
 - 세부 항목 수준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 해소 정도가 가장 낮아, 보건·복지 여건의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모든 정책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집단, 귀농·귀촌인 집단의 5년 사이 만족도 향상 폭이 크며, 2019년 현재 부문별 만족도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인다.
 - 경제·문화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가운데 연령, 농림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낮은 세부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집단별로 충족되지 못하는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보다 면 지역, 근교 지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격 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떨어진다.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등 네 개의 부문에 대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반면, 환경·경관 및 안전 등 상대적으로 여건 인식이 양호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농어촌 지역의 장점으로 발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보건·복지 부문 여건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건이 취약한 원격 지역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지수를 조사하여 포괄적 관점에서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에서 5년 전에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나, 2019년에는 도시 지역을 능가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이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한 결과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농어촌 주민의 비율 역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 주관적 웰빙의 조사 결과, 도시 주민의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상승하여 모든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보다 양호하게 나타난다.

-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구체적인 부문별 정주 여건은 실제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요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책 부문은 보건·복지 29.0%, 2위는 정주생활기반 19.8%, 3위는 경제활동·일자리 18.0%라는 점에서, 농어촌 주민이 7대 정책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의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각 부문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1점으로 가장 낮으며,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경제활동·일자리와 안전 부문을 제외하고 다섯 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다.

-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도·농 주민 만족도 점수 격차는 2018년 1.2점에서 2019년 1.0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7개 부문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6.6점) 부문이었으며, 이어서 정주생활기반(6.2점), 환경·경관(5.9점), 보건·복지(5.6점), 교육(5.5점), 문화여가(5.3점), 경제활동·일자리(5.1점) 순이다.
- 2018년에 비해 도·농 격차는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였으며, 안전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0.6점)하였다.

○ 7대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만족도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안전 부문의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보다 떨어지는데, 도·농 만족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세부 항목은 '의료 서비스 수준(1.4점)', '의료 서비스 접근성(1.3점)',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1.3점) 순으로 보건·복지 부문에 집중되어있다. 그밖에도 '대중교통(1.3점)', '생활 서비스(0.8)점', '여가 시설(0.8점)', '여가 프로그램(0.8점)' 항목에서의 격차도 나타난다.
- 반면 농어촌 주민의 '주택 상태'와 '경제여건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0.1점씩,

‘범죄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0.3점,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0.2점만큼 도시 주민의 만족도보다 높다.

- 2018년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점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항목에서 0.2점 이내의 소폭 증감이 이루어졌다.

○ 지역에서의 불편한 여건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 중 46.7%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그 중에서도 66.0%는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 주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꼽히고 있으며, 그밖에 소득 여건, 보건·복지 여건, 문화 여건이 뒤따라, 앞서 살펴보았던 도·농 정주 만족도 격차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마지막해인 2014년과 2019년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정책 체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년 사이 일제히 떨어진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던 점수가 2019년에는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 7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2014년도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그 중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것은 2.4점 상승한 문화·여가 부문이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격차도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 정주생활기반과 문화·여가 부문에서 완화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며, 세부 항목 중에서는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여가 시설’, ‘소득 기회’ 등 항목에서 완화 정도가 가장 크다.
-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5년 사이 0.5점 상승한데 그쳐 상승 폭이 가장 낮으며,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 완화 정도가 가장 저조하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세부 항목 중 2014년과 2019년에 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연령, 농림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와 5년 사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 지난 5년 사이 연령대에 무관하게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만족도 개선폭은 가장 저조하며, 2019년에도 만족도 점수가 여전히 낮다. 그 중에서도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산 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며,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집단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읍 지역에 비해 면 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서비스' 여건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0.6점으로 가장 크다.
 - 그밖에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수준', '아동 양육·보호 지원' 등 보건·복지 및 정주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지만, 격차가 큰 상위 세부 항목 중 절반은 보건·복지 부문에 해당된다.
 - 반면, 환경·경관 및 안전 부문 여건에 대해서는 읍 지역보다 오히려 면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격 농어촌 지역이 근교 농어촌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다.
 - 특히 원격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근교 및 일반 농어촌 지역보다 낮다.

2. 시사점

- 취약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모델을 개발·추진하여 정주 여건에 대한 도·농 격차, 농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도시 지역과 만족도 점수 격차가 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등 의료 복지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도시 지역과 만족도 격차가 크고 농어촌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중교통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촌형 스마트 교통모델 개발 및 배후지와 중심지 연계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접근성 및 인프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플랜 및 농어촌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분야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 등 농어촌 신산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및 향토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등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경관을 비롯한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연령별·계층별로 상이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이 체감하는 지난 5년간의 여건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인구를 벗어나 다변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이 요구된다.
 - 공통적으로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은 일자리 지원 항목의 만족도가 더 낮다는 점 등 각 집단별로 상이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 보건·복지 부문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특히 젊은 귀농·귀촌인 주민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부 록 I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 김민석 연구원(061-820-2078)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 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포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만()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 ()읍·면·동 ()리(행정리)

Q02. 현재의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Q03. [주관적 웰빙지수] 다음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⑤---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⑤---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① ---⑤---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① ---⑤---⑩	()점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⑤---⑩	()점

Q04.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구분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행복감]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⑤---⑩	()점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⑤---⑩	()점
[마을 발전 전망]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⑤---⑩	()점
[시군 발전 전망]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⑤---⑩	()점

Q05. 다음은 살고 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⑤---⑩
	[의료 서비스 수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① ---⑤---⑩
	[아동 양육·보호 지원]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⑤---⑩
	[취약계층 복지 지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⑤---⑩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⑤---⑩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⑤---⑩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 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⑤---	⑩
교육	[학교 교육 여건]	아이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⑤---	⑩
	[방과 후 교육 기회]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과 후 교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⑤---	⑩
	[평생학습 기회]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①	---⑤---	⑩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①	---⑤---	⑩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①	---⑤---	⑩
	[생활 인프라]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①	---⑤---	⑩
	[생활 서비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⑤---	⑩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⑤---	⑩
	[통신 시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⑤---	⑩
	[공동체 활동]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⑤---	⑩
경제 활동 · 일자리	[소득기회]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①	---⑤---	⑩
	[경제여건 향상]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①	---⑤---	⑩
	[농외소득 (농촌지역만 설문)]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①	---⑤---	⑩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⑤---	⑩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⑤---	⑩
	[여가 프로그램]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⑤---	⑩
	[향토문화 향유]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①	---⑤---	⑩
	[문화 공동체 활동]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①	---⑤---	⑩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①	---⑤---	⑩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	---⑤---	⑩
	[적은 환경오염]	쓰레기·분노·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①	---⑤---	⑩
안전	[범죄 안전]	철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⑤---	⑩
	[교통안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⑤---	⑩
	[자연재해 안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⑤---	⑩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 다
	[농작업 안전] (농업중사자만 설문)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①	---⑤---	⑩
지역 사회	[지역사회 활동]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⑤---	⑩

Q06.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만** 골라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복지]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여건	()위
[교육] 아이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위
[정주생활기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위
[경제활동·일자리]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경관 여건	()위
[안전]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전 여건	()위

Q07.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Q07-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Q08번 문항으로

(Q07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7-1, Q07-2)

Q07-1.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

- ① 도시로 ②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③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④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07-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어려워하면 [보기] 제시

[보기]

정주생활기반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구직, 창업 등)/농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지역사회	⑦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육	⑧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⑨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⑩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의료	⑪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복지	⑫ (영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문화·여가	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안전	⑭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⑮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그 외	⑯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개인 희망이 아닌)
	⑰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 ⑩ 기타: (내용: _____)

Q08.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 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 Q0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09번 문항으로

(Q08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8-1. 귀농 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 하셨습니까?

- ① 귀농 ② 귀촌

Q08-2.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Q9.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 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 기타()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 댁의 최근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상당히 불만족한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5. 현재 선생님은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 주십시오.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⑨ 기타(_____)

DQ06. 선생님 택(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 텃밭 등 취미농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DQ07. **선생님 택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가구 ※ DQ08 문항으로
② 1세대 가구(부부) ※ DQ08 문항으로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④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⑤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⑥ 기타 (_____) ※ DQ07-1번 문항으로

(DQ07 문항에서 ③~⑥에 답한 경우만)

DQ07-1. 귀 택에는 **성인이 아닌(1~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 DQ08번 문항으로 ② 있다 ※ DQ07-2번 문항으로

(DQ07-1 문항에서 ②에 답한 경우만)

DQ07-2.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 복수응답 가능)
① 영유아 ② 초등학교 ③ 중·고등학교 ④ 기타(_____)

DQ08. 선생님 **택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 록 II

2014~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201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5.2	-2.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9	4.8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2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	5.3	-1.4
	(평균)	6.5	5.1	-1.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4.8	-1.7
	평생학습 기회	5.8	4.2	-1.6
	(평균)	6.2	4.5	-1.7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대	6.7	5.3	-1.4
	생활 인프라	7.3	4.5	-2.8
	생활 서비스	7.5	4.5	-3.0
	대중교통	7.6	4.9	-2.7
	(평균)	7.3	4.8	-2.5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4	3.7	-1.7
	경제여건 향상	5.1	4.0	-1.1
	농외소득	4.4	3.9	-0.5
	(평균)	5.0	3.9	-1.1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0	3.3	-2.7
	여가 프로그램	5.9	2.5	-3.4
	(평균)	6.0	2.9	-3.1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5.2	-1.1
	적은 환경오염	6.4	5.4	-1.0
	(평균)	6.4	5.3	-1.1
안전	범죄 안전	6.4	6.1	-0.3
	교통안전	6.2	5.7	-0.5
	자연재해 안전	6.9	5.8	-1.1
	(평균)	6.5	5.9	-0.6
〈표본수〉		〈610명〉	〈1,168명〉	-

〈2015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2	-1.4
	의료 서비스 수준	7.1	5.8	-1.3
	아동 양육·보호 지원	6.5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9	-1.1
	(평균)	6.9	5.9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8	5.5	-1.3
	평생학습 기회	6.5	5.3	-1.2
	(평균)	6.7	5.5	-1.2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9	6.5	-0.4
	생활 인프라	7.1	5.8	-1.3
	생활 서비스	7.4	6.1	-1.3
	대중교통	7.3	5.7	-1.6
	(평균)	7.2	6.0	-1.2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6	4.6	-1.0
	경제여건 향상	5.7	4.9	-0.8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6	4.8	-0.8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3	4.8	-1.5
	여가 프로그램	6.2	4.6	-1.6
	(평균)	6.3	4.7	-1.6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0	5.0	-1.0
	적은 환경오염	6.5	6.4	-0.1
	(평균)	6.4	5.9	-0.5
안전	범죄 안전	6.5	6.7	0.2
	교통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2	6.8	-0.4
	(평균)	6.7	6.6	-0.1
〈표본수〉		〈1,269명〉	〈1,775명〉	-

〈2016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8	6.4	-1.4
	의료 서비스 수준	7.4	5.9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5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2	6.0	-1.2
	(평균)	7.1	6.0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6	-1.2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3	-1.6
	평생학습 기회	6.6	5.2	-1.4
	(평균)	6.8	5.4	-1.4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8	6.4	-0.4
	생활 인프라	7.3	6.1	-1.2
	생활 서비스	7.5	6.0	-1.5
	대중교통	7.6	5.8	-1.8
	통신 시설	7.8	6.7	-1.1
	(평균)	7.4	6.2	-1.2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9	4.8	-1.1
	경제여건 향상	5.9	4.9	-1.0
	농의소득	5.4	4.8	-0.6
	(평균)	5.7	4.8	-0.9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6	4.8	-1.8
	여가 프로그램	6.5	4.5	-2.0
	(평균)	6.6	4.7	-1.9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1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4	5.8	-0.6
안전	범죄 안전	6.8	6.7	-0.1
	교통안전	6.6	6.4	-0.2
	자연재해 안전	7.3	7.0	-0.3
	화재 발생 대응	7.1	6.4	-0.7
	농작업 안전	6.7	5.9	-0.8
	(평균)	6.9	6.5	-0.4
〈표본수〉		〈917명〉	〈1,950명〉	-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5	-1.1
	의료 서비스 수준	7.3	5.9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7	5.7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5	6.0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1	6.0	-1.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6	5.8	-0.8
	(평균)	7.0	6.0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6	-1.3
	평생학습 기회	6.6	5.5	-1.1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	7.0	6.3	-0.7
	학생 통학 어려움	7.1	6.2	-0.9
	(평균)	6.9	5.9	-1.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8	6.6	-0.2
	생활 인프라	7.2	6.3	-0.9
	생활 서비스	7.4	6.4	-1.0
	대중교통	7.3	6.0	-1.3
	통신 시설	7.7	6.9	-0.8
	공동체 활동	5.7	5.8	0.1
	(평균)	7.0	6.3	-0.7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6.0	5.0	-1.0
	경제여건 향상	6.0	5.3	-0.7
	농외소득	5.8	5.0	-0.8
	(평균)	5.9	5.1	-0.8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7	5.1	-1.6
	여가 프로그램	6.6	4.8	-1.8
	향토문화 향유	6.3	5.2	-1.1
	(평균)	6.5	5.0	-1.5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3	5.3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5	5.9	-0.6
안전	범죄 안전	6.8	6.8	0.0
	교통안전	6.6	6.5	-0.1
	자연재해 안전	7.2	7.0	-0.2
	화재 발생 대응	7.2	6.7	-0.5
	농작업 안전	7.2	6.2	-1.0
	(평균)	7.0	6.6	-0.4
〈표본수〉		〈1,039명〉	〈1,991명〉	-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3	6.1	-1.2
	의료 서비스 수준	7.1	5.6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6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5.7	-0.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5	-1.5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4	5.6	-0.8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평균)	6.5 6.8	5.1 5.6	-1.4 -1.2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7	-0.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7	-0.8
	평생학습 기회	6.0	5.3	-0.7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평균 산출시 제외)	6.5	5.8	-0.7
	학생 통학 어려움(평균 산출시 제외)	6.8	5.8	-1.0
	지역사회 연계 통합 교육 (평균)	6.0 6.3	5.4 5.5	-0.6 -0.8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6	6.6	0.0
	생활 인프라	7.0	6.3	-0.7
	생활 서비스	7.1	6.2	-0.9
	대중교통	7.1	5.7	-1.4
	통신 시설	7.5	6.7	-0.8
	공동체 활동 (평균)	6.2 6.9	5.9 6.2	-0.3 -0.7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6	5.1	-0.5
	경제여건 향상	5.6	5.2	-0.4
	농외소득	-	5.2	-
	일자리 지원	5.6	5.1	-0.5
	청년 일자리 지원 (평균)	5.4 5.6	5.0 5.1	-0.4 -0.5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2	5.4	-0.8
	여가 프로그램	6.1	5.3	-0.8
	향토문화 향유	6.2	5.6	-0.6
	문화 공동체 활동 (평균)	5.6 6.0	5.1 5.4	-0.5 -0.6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4	6.1	-0.3
	에너지 비용 절감	5.9	5.6	-0.3
	적은 환경오염 (평균)	6.3 6.2	5.9 5.9	-0.4 -0.3
안전	범죄 안전	6.7	6.6	-0.1
	교통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1	6.6	-0.5
	화재 발생 대응	7.0	6.3	-0.7
	농작업 안전	6.7	6.1	-0.6
	안전시설 및 설비 (평균)	6.7 6.8	6.0 6.3	-0.7 -0.5
〈표본수〉		〈949명〉	〈2,203명〉	-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6.1	-1.3
	의료 서비스 수준	7.0	5.6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4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8	5.6	-1.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2	5.5	-0.7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평균)	6.4 6.6	5.1 5.6	-1.3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8	-0.7
	방과 후 교육 기회	6.4	5.7	-0.7
	평생학습 기회	6.0	5.4	-0.6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8	5.2	-0.6
	(평균)	6.2	5.5	-0.7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5	6.6	0.1
	생활 인프라	7.0	6.3	-0.6
	생활 서비스	7.0	6.1	-1.0
	대중 교통	7.0	5.7	-1.3
	통신 시설	7.5	6.7	-0.9
	공동체 활동 (평균)	6.0 6.8	5.9 6.2	-0.1 -0.6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1	5.1	0.0
	경제여건 향상	5.0	5.1	0.1
	농외소득	-	5.1	-
	일자리 지원	5.2	5.0	-0.2
	청년 일자리 지원 (평균)	- 5.1	- 5.1	- 0.0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1	5.3	-0.8
	여가 프로그램	5.9	5.1	-0.8
	향토문화 향유	5.9	5.6	-0.4
	문화 공동체 활동 (평균)	5.3 5.8	5.1 5.3	-0.2 -0.5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6.3
에너지 비용 절감		5.7	5.4	-0.3
적은 환경오염		6.1	6.0	-0.1
(평균)		6.0	5.9	-0.1
안전	범죄 안전	6.5	6.8	0.3
	교통안전	6.1	6.3	0.2
	자연재해 안전	7.0	6.7	-0.2
	화재 발생 대응	-	-	-
	안전시설 및 설비	-	-	-
	농작업 안전 (평균)	- 6.5	6.3 6.6	- 0.0
〈표본수〉		〈719명〉	〈2,344명〉	-

부 록 III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단위: 점)

부문	연도별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 · 복지	5.9	6.0	6.0	5.6	5.6	6.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6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5.6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5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1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5.5	5.4	5.6	5.5	5.5	5.8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5.7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4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5.2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정주 생활 기반	6.0	6.2	6.3	6.2	6.2	6.6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6.3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6.1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9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계속)

부문	연도별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제 활동 · 일자리	4.8	4.8	4.6	4.8	5.0	5.1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9	4.9	5.3	5.2	5.1	최근 1년간(2018년부터 3년간으로 변경)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8	4.8	5.1	5.0	5.1	5.1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	-	-	5.1	5.0	5.0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5.0	-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4.7	4.7	4.8	4.8	5.1	5.4	5.3	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6	4.5	4.8	5.3	5.1	5.1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5.2	5.6	5.6	5.6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	-	-	5.1	5.1	5.1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환경 · 경관	5.9	5.8	6.3	6.2	6.3	6.1	6.3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	5.1	5.9	5.3	5.9	5.4	5.4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4	6.2	6.2	5.9	6.0	6.0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6	6.5	6.7	6.7	6.8	6.6	6.6	6.8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	6.4	6.5	6.3	6.3	6.3	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8	7.0	7.0	6.6	6.7	6.7	6.7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6.4	6.7	6.3	6.3	-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5.9	6.2	6.1	6.1	6.3	6.3	6.3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	-	-	6.0	-	-	-	-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전체	5.6	5.6	5.8	5.7	5.7	(전체 평균)					

주: 2018년, 2019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부 록 IV

2014, 2019년 세부 문항별 도·농 격차 증감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도시	2014년 농어촌	2019년 도시	2019년 농어촌	도·농 격차* (농어촌-도시)증감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5.2	7.4	6.1	1.2
	의료 서비스 수준	-	-	7.0	5.6	-
	아동 양육·보호 지원	5.9	4.8	6.4	5.6	0.3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2	6.2	5.6	-0.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	5.3	6.8	5.6	0.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	-	6.2	5.5	-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평균)	-	-	6.4	5.1	-
	(평균)	6.5	5.1	6.6	5.6	0.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4.8	6.5	5.8	1.0
	빙과 후 교육 기회	-	-	6.4	5.7	-
	평생학습 기회	5.8	4.2	6.0	5.4	1.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평균)	-	-	5.8	5.2	-
	(평균)	6.2	4.5	6.2	5.5	1.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7	5.3	6.5	6.6	1.4
	생활 인프라	7.3	4.5	7.0	6.3	2.2
	생활 서비스	7.5	4.5	7.0	6.1	2.0
	대중교통	7.6	4.9	7.0	5.7	1.4
	통신 시설	-	-	7.5	6.7	-
	공동체 활동 (평균)	-	-	6.0	5.9	-
	(평균)	7.3	4.8	6.8	6.2	1.8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기회	5.4	3.7	5.1	5.1	1.7
	경제여건 향상	5.1	4.0	5.0	5.1	1.2
	농외소득	4.4	3.9	-	5.1	-
	일자리 지원 (평균)	-	-	5.2	5.0	-
	(평균)	5.0	3.9	5.1	5.1	1.5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6.0	3.3	6.1	5.3	1.9
	여가 프로그램	5.9	2.5	5.9	5.1	1.6
	향토문화 향유	-	-	5.9	5.6	-
	문화 공동체 활동	-	-	5.3	5.1	-
	(평균)	6.0	2.9	5.8	5.3	1.8

(계속)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도시	2014년 농어촌	2019년 도시	2019년 농어촌	도·농 격차* (농어촌-도시)증감
환경 · 경관	정도된 환경경관	6.3	5.2	6.3	6.3	1.1
	에너지 비용 절감	-	-	5.7	5.4	-
	적은 환경오염	6.4	5.4	6.1	6.0	0.9
	(평균)	6.4	5.3	6.0	5.9	1.0
안전	범죄 안전	6.4	6.1	6.5	6.8	0.6
	교통안전	6.2	5.7	6.1	6.3	0.7
	자연재해 안전	6.9	5.8	7.0	6.7	0.8
	농작업 안전	-	-	-	6.3	-
	(평균)	6.5	5.9	6.5	6.6	0.7

(*19년 도·농 차이 - '14년 도·농 차이)

부 록 V

2014, 2019년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2014년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 인	아님
보간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4	5.3	5.1	5.0	5.4	4.6	5.3
	아동 양육·보호 지원	4.8	4.9	4.7	4.7	4.9	4.6	4.8
	취약계층 복지 지원	4.8	5.3	5.3	5.3	5.2	4.9	5.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4.4	5.3	5.5	5.3	5.3	4.6	5.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4.8	4.8	4.8	4.6	5.0	4.4	4.8
	평생학습 기회	3.9	4.1	4.2	3.9	4.4	4.0	4.2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5.5	5.4	5.2	5.1	5.5	4.4	5.4
	생활 인프라	5.5	4.4	4.4	4.1	4.9	3.9	4.6
	생활 서비스	5.0	4.6	4.3	4.0	4.9	3.7	4.5
	대중교통	4.2	4.9	5.1	4.8	5.0	4.3	5.0
경제활동 일자리	소득 기회	3.8	4.1	3.5	3.7	3.8	3.7	3.8
	경제여건 향상	4.3	3.9	3.9	3.8	4.2	3.6	4.0
	농외소득	4.5	4.0	3.7	3.5	4.2	3.8	3.9
문화 여가	여가 시설	4.1	3.6	2.9	2.8	3.8	2.8	3.3
	여가 프로그램	3.0	3.0	2.2	2.1	2.9	2.2	2.6
환경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5.5	5.3	5.0	5.1	5.3	4.7	5.2
	적은 환경오염	5.8	5.4	5.2	5.2	5.5	4.7	5.4
안전	범죄 안전	6.0	6.0	6.2	6.0	6.2	5.5	6.2
	교통안전	5.4	5.6	5.8	5.6	5.7	5.5	5.7
	자연재해 안전	5.6	5.9	5.7	5.6	5.9	5.2	5.8

(2019년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별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 인	아님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5	6.1	6.4	6.4	6.0	4.9	6.2
	의료 서비스 수준	5.1	5.6	6.1	6.2	5.5	4.6	5.8
	아동 양육·보호 지원	5.1	5.7	5.8	5.9	5.4	4.8	5.7
	취약계층 복지 지원	5.0	5.6	6.1	6.2	5.5	5.0	5.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4.8	5.4	6.4	6.6	5.4	4.9	5.7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4.9	5.5	6.0	6.1	5.4	4.9	5.6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4.4	5.0	5.6	5.9	4.9	4.3	5.2
교육	학교 교육 여건	5.5	5.7	6.1	6.3	5.6	5.4	5.8
	방과 후 교육 기회	5.3	5.7	5.9	6.0	5.6	5.1	5.7
	평생학습 기회	4.9	5.2	5.9	6.1	5.2	5.0	5.4
	지역사회 연계 교육	4.8	5.1	5.7	5.9	5.1	4.7	5.3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2	6.6	6.9	7.2	6.4	6.4	6.6
	생활 인프라	6.0	6.3	6.6	6.7	6.1	5.4	6.5
	생활 서비스	5.8	6.1	6.3	6.4	6.0	5.0	6.2
	대중교통	5.0	5.6	6.3	6.5	5.4	4.7	5.8
	통신 시설	6.5	6.8	6.7	6.6	6.8	6.1	6.8
	공동체 활동	5.3	5.8	6.5	6.8	5.6	5.5	6.0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4.8	5.1	5.4	5.8	4.8	4.7	5.2
	경제여건 향상	4.9	5.0	5.4	5.8	4.8	4.7	5.2
	농외소득	4.8	5.0	5.4	5.7	4.8	4.8	5.1
	일자리 지원	4.7	4.8	5.3	5.7	4.7	4.5	5.1
문화·여가	여가 시설	5.0	5.2	5.6	5.8	5.2	4.6	5.4
	여가 프로그램	4.8	5.0	5.4	5.6	5.0	4.6	5.2
	향토문화 향유	5.1	5.5	6.0	6.2	5.4	5.3	5.6
	문화 공동체 활동	4.4	4.9	5.8	6.2	4.7	4.7	5.1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5.8	6.1	7.1	7.4	6.0	6.0	6.4
	에너지 비용 절감	5.0	5.3	5.8	6.2	5.1	4.9	5.5
	적은 환경오염	5.1	5.8	6.8	7.1	5.6	5.5	6.1
안전	범죄 안전	6.1	6.7	7.5	7.8	6.5	6.7	6.9
	교통안전	5.5	6.2	7.1	7.3	6.0	6.1	6.4
	자연재해 안전	6.5	6.7	7.5	7.4	6.5	6.4	6.8
	농작업 안전	5.7	6.2	7.0	7.1	6.0	5.8	6.4

부 록 VI

2019년 농어촌 지역 읍·면 구분에 따른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읍 지역	면 지역	읍·면 격차 (읍-면)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4	5.8	0.6
	의료 서비스 수준	5.8	5.5	0.3
	아동 양육·보호 지원	5.7	5.4	0.3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6	0.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8	5.5	0.3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5.4	0.2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5.2	5.0	0.2
	(평균)	5.7	5.4	0.3
교육	학교 교육 여건	5.8	5.7	0.1
	방과 후 교육 기회	5.7	5.6	0.1
	평생학습 기회	5.4	5.3	0.1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3	5.2	0.1
	(평균)	5.6	5.4	0.2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6.5	6.7	-0.2
	생활 인프라	6.5	6.2	0.3
	생활 서비스	6.4	5.8	0.6
	대중교통	5.9	5.5	0.4
	통신 시설	6.8	6.6	0.2
	공동체 활동	5.8	6.0	-0.2
(평균)	6.3	6.1	0.2	
경제활동·일자리	소득기회	5.1	5.1	0.0
	경제여건 향상	5.1	5.2	-0.1
	농외소득	5.1	5.1	0.0
	일자리 지원	5.0	5.0	0.0
	(평균)	5.1	5.1	0.0
문화·여가	여가 시설	5.4	5.1	0.3
	여가 프로그램	5.2	5.0	0.2
	향토문화 향유	5.6	5.5	0.1
	문화 공동체 활동	5.0	5.1	-0.1
	(평균)	5.3	5.2	0.1

(계속)

부문	세부 항목	읍 지역	면 지역	읍·면 격차(읍-면)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2	6.5	-0.3
	에너지 비용 절감	5.3	5.5	-0.2
	적은 환경오염	5.9	6.1	-0.2
	(평균)	5.8	6.0	-0.2
안전	범죄 안전	6.7	7.0	-0.3
	교통안전	6.2	6.4	-0.2
	자연재해 안전	6.8	6.7	0.1
	농작업 안전	6.3	6.3	0.0
	(평균)	6.5	6.6	-0.1

부 록 Ⅶ

2019년 농어촌 지역 접근성에 따른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근교 농어촌	일반 농어촌	원격 농어촌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2	6.1	5.4
	의료 서비스 수준	5.8	5.6	4.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7	5.6	4.5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7	5.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8	5.5	5.3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7	5.6	4.5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5.3	5.1	3.4
(평균)	5.8	5.6	4.7	
교육	학교 교육 여건	5.9	5.8	5.2
	방과 후 교육 기회	5.8	5.7	5.1
	평생학습 기회	5.5	5.4	4.6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3	5.3	4.4
	(평균)	5.6	5.6	4.8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5	6.7	6.3
	생활 인프라	6.5	6.3	5.9
	생활 서비스	6.3	6.1	5.7
	대중교통	5.7	5.7	5.6
	통신 시설	6.9	6.6	6.1
	공동체 활동	5.9	5.9	5.6
	(평균)	6.3	6.2	5.9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1	5.2	4.3
	경제여건 향상	5.2	5.2	4.3
	농외소득(농촌만)	5.1	5.2	4.3
	일자리 지원	5.0	5.1	4.3
	(평균)	5.1	5.2	4.3
문화 · 여가	여가 시설	5.4	5.3	4.4
	여가 프로그램	5.2	5.2	4.5
	향토문화 향유	5.5	5.7	5.1
	문화 공동체 활동	5.1	5.2	4.3
	(평균)	5.3	5.3	4.6

(계속)

부문	세부 항목	근교 농어촌	일반 농어촌	원격 농어촌
환경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2	6.5	6.7
	에너지 비용 절감	5.3	5.6	4.7
	적은 환경오염	5.8	6.1	6.5
	(평균)	5.8	6.1	5.9
안전	범죄 안전	6.7	7.0	7.3
	교통안전	6.2	6.4	6.9
	자연재해 안전	6.8	6.8	6.7
	안전한 작업환경(농촌만)	6.4	6.3	6.5
	(평균)	6.5	6.6	6.9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농촌진흥청. 2017. 『2017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농촌진흥청. 2018.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성주인, 박대식, 정은미, 민경찬 . 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증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김광선, 성주인, 채종현, 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채종현.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노승철, 권인혜, 한태녕. 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박지숙.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